

PUBLIC ART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WWW.ARTINPOST.CO.KR MAY 2015



세계비엔날레 속 한국작가 60

60 korean artists in the biennales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5

9 771975 643707
ISSN 1975-6437
05

104
201505



Oh Heinkuhn 오형근

인도트리엔날레(2005)



1963년 서울에서 출생한 오형근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진작업을 해오고 있다. '아줌마' 시리즈(1999)와 '소녀들의 화장법' (2008), '중간인' (2012)으로 이어지는 시리즈는 오형근의 작품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 각각 아줌마와 소녀, 군인에 이르는 이들의 초상을 통해 사회 속 군상이 지니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오고 있다. 1988년 미국 브룩스사진대학에서 상업사진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1991년 오하이오대학교 순수예술사진 석사 졸업 후 동대학원을 영화전공으로 수료했다. 현재 계원 조형 예술대학교에서 사진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1998년 타이베이비엔날레를 시작으로 헤르텐국제사진전(2001), 프랑스의 포토케비엔날레(2013)에 참여했다. 특히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한국관 작가로 활약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Born in 1963, in Seoul, Oh Heinkuhn is a photographer, who mainly focuses on portrait. Through the renowned series titled 'Ajumma(1999),' 'Girl's act(2008),' and 'Middlemen(2012)', he tells about the identity of people who live in contemporary society. After graduated from the Brooks Institute of Photography, he studied film and photography at Ohio University. Now he teaches students in Kaywon School of Art and Design as an associate professor. He joined Taipei Biennial(1998), InternationaleFototage in Herten(2001), Photoquai 4th Biennial(2013). Also, he gain reputation by representing artist of the Korean Pavilion in Venice Biennale(2005).

〈Portraying Anxiety〉 2007-2013 C-print 340x700cm